

9. 향유를 부은 여인

신앙고백

찬 송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기 도 : 말은이

말 씀 :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묵상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맙아들이 죽는 재앙을 모면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 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1.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했습니다(3).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3백 데나리온 정도로, 당시 노동자의 일 년 치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최고의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2.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7).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전5:7).”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8).

향유를 팔아 나눠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질책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평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중요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맺는말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말씀적용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기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국내미자립교회(군산서수제일교회)를 후원합니다.

2. 성회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2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수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공동의회 결과

지난 주 공동의회 결과 조항철 목사를 둔전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교역자 사임

임창세 담임목사 : 용산제일교회(서울노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1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둔전교회를 섬기는 이들

창립 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휘자 : 이영준

반주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제118권 제 9호

2022. 2. 27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1904
DOON JEON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40장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교독문	10. 시편 16편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95장	다같이
기도	1부: 최인선 집사 2부: 최영란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21장 15-17절 (신약 185면)	인도자
------	---------------------------	-----

찬양	주님은 옳습니다	영상
----	----------	----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임창세 목사
----	-------------	--------

3월 봉사위원

	2월 27일	3월 6일	3월 13일	3월 20일
예배기도	1부 최인선	이말자	박목녀	하연주
	2부 최영란	안술조	이미숙	최광순
	3부			
헌금위원	(2월) 1부 : 안상분 (3월) 1부 : 나자금	2부 : 정장환 2부 : 박정아		

결단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시선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십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정진영 목사	둔전아침묵상

【요한복음 21장 15-17절】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오후 9:00	본당
금요십야기도회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밀양위례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아침묵상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박심원·윤관순 서인순 안홍욱 윤종찬·임신자 이종임 임근실 정재현 최광순

◆ 감사헌금

강호성 김상호·장명자 김서정·김시영 김수매 명민주 박상민 박연우 박정아 박재락 윤종찬·임신자 이경임 이말자 이순자 이재중·양경애 이훈삼 정귀자 최미연 황미선 무명4

◆ 선교헌금

◆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368,000	570,000	1,767,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